

해 외 출 장 복 명 서

출 장 자	소 속	인적자원연구실	직 위	연구위원	성 명	김원홍
출장기간	당 초	2007. 8월 6~9일 (4일)	출 장 지	당 초	중국 북경, 상해	
	변 경			변 경		
출장목적	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예비사업」 관련 남북 전문가 워크숍 참석					
경비부담	우리원 부담(기본연구사업비, 연구관련사업비, 수탁연구사업비) (0천원)					
	주최측 부담(V)					
주최기관	통일문제연구협의회					
방문기관		면담자			협의사항	
• 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예비사업」 관련 남북 전문가 회의(장소: 중국 북경 중앙민족 대학교) • 한중회의 참석(장소: 중국 복단대학교)		• 북측(북경): 송동원 조선사회과학원 김일성혁명역사연구소 소장, 리동혁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구사 (보위부 인사) 등 • 중국측(중국측): 박창근 상해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한국 연구중심 교수, 김종범 상해재경대학 재경연구소 박사			내용 첨부	

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

2007. 8. .

출 장 복 명 자 : 김 원 홍

<표지>

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

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
예비사업」 관련 남북 전문가 워크숍

보고자 : 김 원 홍 연구위원
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적자원연구실

<본문>

1. 회의명 : 『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예비사업』 관련남북 전문가 워크숍 참석

2. 회의 배경 및 목적

- 『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』 편찬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남북간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함.
- 2007년 8월 말 발간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『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 예비사업』의 중간결과물에 대한 북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의미 있는 예비사업이 되도록 함.
- 한중여성교류 방안 협의

3. 참가자 규모: 관련분야 전문가 약 20여명<명단 참조>

4. 회의 일정

- 8월 6일(월) 서울 출발 - 북경 도착
남북한 참가자 만찬
- 8월 7일(화) 남북한 워크숍
손기웅 (통일연구원) 발제 및 참가자토론
“『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』 편찬의 의미와 남북협력방안”
- 8월 8일(수) 북경 출발 - 상해 도착
북단대학교 방문: 중국의 체제전환에 관한 토론
- 8월 9일(목) 상해출발 - 서울 도착

5. 주요 내용

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

2007. 8.

통일문제연구협의회

1.출장자(가나다 순) :

강광규(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)
강일규(한국직업능력개발원)
김승호(통일문제연구협의회 운영부장)
김원홍(한국여성정책연구원)
김희규(한국교육과정평가원)
손기웅(통일문제연구협의회 사무국장)
손현수(평화문제연구소)
원동욱(한국교통연구원)
이상준(국토연구원)
이서행(한국학중앙연구원)

2. 출장지 : 중국 북경 및 상해

3. 출장결과

가. 북경 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」 편찬 관련 남북회의

1) 1차 간담회

○ 북측 참여자 :

- 송동원 조선사회과학원 김일성혁명역사연구소 소장
- 리동혁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구사 (보위부 인사)

○ 남측 참여자 :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참여자 전원

○ 내용 :

- 통일문제연구협의회 및 소속기관의 활동상황을 소개함.
- 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」 편찬사업의 의의를 설명하고, 금년도에 추진 중인 예비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함.
- 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」 편찬사업의 남북 공동추진을 제의하고 제안서를 제출함([첨부] 참조).

2) 2차 간담회: 남북한·중국 국제학술회의 참여

○ 북측 참여자 :

- 송동원 조선사회과학원 김일성혁명역사연구소 소장
- 리동혁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구사 (보위부 인사)
- 공성득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구사
- 김정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구사

○ 남측 참여자 :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참여자 전원 외 한국학자

○ 중국측 참여자 : 중앙민족대학교 황유복 교수, 연변대학교 손춘일 교수 외 중국학자

○ 내용 :

- 중앙민족대학교 사회학학원,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, 조선사회과학자협회,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“21세기 동북아공동체 건설을 위한 민족화해”란 주제의 학술회의에 참여하고 토론함.
- 정치·군사적 측면, 경제적 측면, 문화적 측면에서의 민족화해를 위한 발표가 있었으며,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개진됨.
- 북한의 리동혁은 “우리나라에서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한 몇 가지 경험에 대한 몇 가지 고찰”의 발표에서 체제선전적인 틀에 박힌 주장을 함.
- 북한의 경제현황 관련 토론에서 북측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남측의 진단에 민감하게 대응함.

3) 3차 간담회: 남북한 참여자간 오찬

○ 북측 참여자:

- 송동원 조선사회과학원 김일성혁명역사연구소 소장
- 리동혁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구사 (보위부 인사)

○ 남측 참여자: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참여자 전원

○ 내용 :

- 북측은 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」 편찬사업의 남북 공동추진과 관련하여 당에 보고할 것이며, 향후 추진과 관련하여 “6·15 공동선언실천 남측학술위원회” (상임대표 이서행, 공동대표 손기웅) 앞으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밝힘.
- 남측은 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」 편찬사업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평양, 금강산, 개성 혹은 제3국에서 남북전문가간의 만남을 제의함.
- 남측 여성의 상황에 대한 소개 및 관심분야(음식분야, 탁아분야)에 대하여 북측 민화협 등을 통하여 향후 과제 도출방안 모색 논의

나. 상해 복단대학교 방문 한·중 회의

- 남측 참여자: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참여자 전원
- 중국측 참여자: 박창근 상해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한국연구중심 교수, 김종범 상해재경대학 재경연구소 박사
- 내용:
 - 통일문제연구협의회 및 소속기관의 활동상황을 소개함.
 - 통일문제연구협의회와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중심간 발간물 교환, 인적 교류를 포함하는 상호 교류협력방안을 협의함.
 - 중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향후 연구 및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 방안 논의

[첨부]

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」 편찬을 위한

- 제 안 서 -

- 남측의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북측과 공동으로 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」을 편찬하고자 합니다.
- 현재 쌍방 간에는 정치, 경제, 과학기술, 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고,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이러한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작업이 교류협력 각 분야의 학술·전문용어 및 개념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의 해소입니다.
 - 학술·전문용어 및 개념에서 나타나는 쌍방 간의 이질성은 일상 언어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.
- 상기 공동사업은 쌍방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경제공동체 및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분야별 학술·전문용어 및 개념을 통일화시켜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대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- 사실 쌍방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「남북학술·전문용어통일사전」이 편찬되어야 하나, 먼저 「남북학술·전문용어비교사전」을 편찬한 후 향후에 통일사전을 편찬하고자 합니다.
- 참고로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남측에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번영을 이룩하고 평화통일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8년 12월 9일 설립되었으며, 참여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강원발전연구원, 경기개발연구원, 국립국어원, 국방대학교, 국토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민족문화교류재단, 민족통일중앙협의회,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, 북한연구소, 산업연구원, 세종연구소, 아태국제이해교육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,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통일연구원, 평화문제연구소, 한국개발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, 한국교육개발원,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국방연구원, 한국노동연구원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, 한국법제연구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여성개발원, 한국조세연구원,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한국청소년개발원, 한국학중앙연구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한국행정연구원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(총 39개 기관)]